

# “아이들이 협상 도구인가” 비난 봇물

### 광주 사립유치원들 개학 연기 투쟁...전남 참여 '제로'와 대조 83% 공공성 강화 찬성 속 개학 연기 땀 형사고발·고강도 감사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 결정은 동시 파괴 행위다. 한유총이 교육자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광주교사노동조합 성명)

“그동안 한유총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사항은 국민을 납득시키는데 실패했다. 개학 연기는 후안무치이고, 반교육적이다”(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성명)

“개학 연기가 확인되면 형사고발 및 유치원 감사에 돌입하겠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위법 행위에 참여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진심으로 호소 드린다”(장회국 광주시교육감)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을 하루 앞둔 3일까지 개학연기 결정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들어간다.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유재산 인정’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유치원 폐원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되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강경 일변도의 한유총 중앙지도부를 광주지회는 대체로 따르는 분위기가 단, 전남지회는 반대의 길을 가는 분위기다.

한유총 소속 광주 사립유치원들은 3일 오후 한때 50곳 이상이 개학 연기 또는 개학 연기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남지회 소속 사립유치원은 전남도교육청 조사 결과, 일찌감치 사실상 104개 사립유치원 전체가 개학연기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광주 사립유치원들이 전남과 달리 강경한 이유로, 취원율과 감사라는 2가지 열쇠달에서 찾고 있다.

광주는 지난 1일 기준, 129개 공립유치원에서 어린이가 4554명을, 159개 사립유치원에서 2만494명을 돌보고 있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취원율이 각각 18.2%와 81.8%로 사립유치원 쏠림이 강해 각종 정책 결정 과정은 물론 선거판까지 사립유치원 원장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게 교육계의 설명이다.

또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올 초부터 진행된 광주시교육청 감사에서 광주 대형 사립유치원 일부가 교비를 부정적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된 것도 신학기 개학 연기 결정과 연관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에 적발돼 수억~수천만원원을 토해낼 형편에 놓인 사립유치원, 거둬들인 시정명령에도 감사를 거부한 대형 유치원이 한유총 중앙지도부의 개학 연기 결정에 적극 호응하는 동시에 주변 유치원에게 개학 연기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전남은 401개 공립유치원에서 9965명(52%), 104개 사립유치원에서 9228명(48%)으로 공립 취원율이 높은 데다, 인구 감소에 따른 급감하는 원생수 때문에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4일 오전 7시30분



“한유총을 탈퇴하라”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사태를 접한 학부모들이 3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진정한 교육자라면 아이를 볼 모로 하는 한유총을 즉각 탈퇴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부터 광주 사립유치원 159곳 전체에 교육청, 자치단체, 경찰 인력 등 3인 1조로 된 조사 팀을 배치해 개학 연기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이날 문을 열지 않은 유치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 개학 연기가 최종 확인되면 형사고발 및 감사에 돌입한다.

교육당국의 이러한 강경 대응 방침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정부의 사립유

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7일 전국 성인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3.1%가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찬바람 부는 변호사 시장

### 광주지역 판·검사 출신 중량급 개업 '제로' 올해 평균사 출신 1명 뿐

올해 평균사 출신 1명 뿐

새봄 개업시즌을 맞은 광주지역 변호사 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예년과 달리 무게감 있는 법원·경찰 출신 중량급 이상의 개업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과다경쟁에 따른 변호사 업계의 불황, 재판예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법원·경찰 조직 내 인사상향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만들어 낸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3일 광주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경찰조직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전국적으로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이 활발하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최근 한달동안 광주지방변호사회에 신규회원 등록을 마친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1명 뿐이다. 평균사 출신인 해당 변호사는 광주·인천지검 등에서 근무했으며, 동구지산동에 개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 지난해 비슷한 시기 4명의 부장급 판·검사가 개업했다.

광주변호사회 관계자는 “최근 현직 판·검사와 관련해 변호사회 등록 절차를

문헌한 사례는 1건 뿐”이라고 밝혔다.

법원·경찰 조직의 인사가 마무리 되는 매년 봄 시즌이면 광주에서 적어도 3명 이상의 판·검사가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올해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로스쿨 출신은 일반적으로 매년 4월 합격자 발표 후 6개월의 연수 과정을 거쳐 10월 이후 변호사 시장에 나온다.

이 같은 영향 등으로 변호사 사무실 개업 등을 겨냥해 법원 인근 지산동 일대에 신축한 건물 중 상당수는 수개월째 공실 상태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법원·경찰 인사가 끝나면 현직 판·검사 중 ‘누가 개업을 한다’는 말이 업계의 단골 뉴스였는데, 올해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서 “법원·경찰 인사 여건상 올해 일시적으로 개업할 만한 인사 요인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변호사 업계의 불황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말 현재 광주에는 38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동휠로 출퇴근, 보험사에 안 알렸다면 보험금 못 받아”

### 항소심서 유족들 패소

전동휠로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이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이정석)는 A씨의 유족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4월 일을 마치고 전동휠을 타고 퇴근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에 치어 사망했다. 이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이륜차를 운행하고 있는데도 알리지 않아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은 ‘계약 후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

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1심은 보험사 측에서 전동휠과 같은 신종 교통수단도 통지 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을 상세히 해주지 않은 만큼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유족들에게 4억여원의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동휠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전동휠의 속도나 구조와 무관하게 운전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봐야 한다”며 “보험사가 이륜자동차의 의미와 종류까지 일일이 설명하거나, 전동휠이 포함된다는 점까지 알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연구원 인건비 가로챌 순천대 교수 집유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경아)는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비를 가로챌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기소된 순천대 A교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교수인 피고자 자신의 연구실에 속한 연구원을 인건비를 편취하고, 물품 구매를 가장해 허위로 연구비를 지급받아 편취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대학에 2억

1000만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교수는 2009년부터 2014년 초까지 연구원 5명의 인건비 6000여만원을 가로채고, 기자재 납품업자 2명과 공모해 연구 재료를 납품한 것처럼 꾸며 4억원 상당의 대학 연구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망월시립묘지 담뱃불 추정 화재...분묘 등 일부 소실

3일 낮 12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망월시립묘지에서 불이 나 분묘(墳墓) 일부가 탔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5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이날 불로 묘지 660㎡의 잔디와 분묘 150여기, 나무 등이 소실

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참배객의 담배꽂조를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끼어들고 경적 울린다며...광주 운전시비 폭행 잇따라

최근 광주에서 운전 시비에 따른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3일 상대 운전자의 어깨를 밀친 기모(26)씨를 폭행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기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경 광주시 북구 오치동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선 사이로 끼어든 김모(47)씨와 다툼 끝에 어깨를 밀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기씨는 시내버스와 자신의 화물차 사이로 끼어든 김씨의 오토바이 때문에 화가나 이 같은 일들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40분께

는 광주시 북구 흥중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던 배달원 이모(19)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오토바이 헬멧을 발로 차 부순 박모(50)씨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박씨는 이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50분께에도 광주시 북구 임동 한 양양면 앞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끼어들기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한 이모(45)씨와 중국집 배달원 윤모(18)군을 붙잡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여성 화장실 드나들며 상습 몰카 촬영 20대 징역형

○광주에서 여성 화장실을 수십차례 드나들며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가 징역형

○3일 광주지법 형사4단부(판사 박남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광주의 한 건물 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을 총 35회나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64차례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위반)로 A(2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는 것.

○박남준 판사는 “동종범죄로 벌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촬영물도 많다.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한 사진 등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군 해지면 바다 150m 대지 790㎡ 팬션 전원생활적합 4천만원
- 무안군 일로읍 화산연꽃자수지 집 1192㎡ 조용한 생활 적합 1억2700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 투자·매도·교환

- 나주 금천면 2차선접 대지 등 2826㎡ 주택 331㎡ 복사하기가능 8억5천
- 서구 아파트단지 반지하노래방 265㎡ 7억 영업장임 임대중 4억7천
- 강진 선전면 월출산 4차선 접 4630㎡ 대형 자수지 인근 요양시설 적합 5억
- 화순 이양면 매정리 산·담 72532㎡ 은행 9천 매도 1억2500
- 농성초 건너편 월산동 소병도 코너상가주택 대지 118㎡ 주택 78㎡ 1억9천
- 완도 군외면 원동리 임 7751㎡ 투자에 좋은 바다인접 4억6천
- 무안읍 원릉·다세대부지 균형 옆 1031㎡ 투자에도 좋은 2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순창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접 상암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5천

#### 상가건물

- 나주 금천면 면사무소 인근 땅 704㎡ 상가주택 211㎡ 5억5천
- 서석동 4층상가 조대 앞 땅 405㎡ 건평 919㎡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 중 12억
- 화순 능주면 소재지 땅 588㎡ 3층건물 1128㎡ 은행 1억 인수액 1억천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대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특급물건

- 나주 금천면 국도 접 주거지·대지·지연복지 25714㎡ 은행 12억 매도 24억
- 정읍 신대인읍 상업지 1273㎡ 아파트·다세대 적합 은행4억 매도 1억
- 북구 북동 금남로 47억 대로접 중심상업지 364㎡ 12억 5천
- 충장로 47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100.2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 오피스텔

###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3층, 38평
- 전체물수리, 하천방향
- 주차 3대 무료, 관리비 저렴
- 보500만원에 월 50만원

### 임대보장

- 즉시입주가능, 사무실 전용
- 시세/감평가 - 1억2천만원

### 급매 - 7500만원

문의. 010-6834-7400

##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87기)	광주교육대학교(197기)
모집/과정	·금요일 오전반 2019. 3. 8(금) 09:10(중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9. 3. 9(토) 09:10(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9. 3. 8(금) 14:10(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9. 3. 9(토) 14:10(고급반)
모집기간	2019. 1. 25(금) ~ 3. 9(토)	
수업기간	2019. 3. 8(금) ~ 2019. 8. 1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 ~ 13:00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특전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 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 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문 의 : 062) 520-4243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EDUCATION UNIVERSITY http://www.gnu.ac.kr

## NPL 과 실전경매(기초)

### 11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강의 일시 ●
- 조선대: 3월 8일(금)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의 볼.

임대 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이도  
자기 소유 공장 만들어 드림!

### 2019년도 1학기

##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9년 2월 28일(목) ~ 3월 8일(금)
- 교육기간 : 2019년 3월 8일(금) ~ 6월 14일(금)
- 수강료 :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004-107-000152
- 접수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